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홈페이지 www.uca.or.kr • 전화 031-850-1400(대표)

124위 복자

복자 최봉한 프란치스코 (1785-1815)



최봉한 프란치스코(1785~1815)는 충청도 홍주 다래골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며 신앙을 키웠다. 공주 무성산으로 이주한 뒤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찾아 한양으로 올라가 성사를 받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황사영 알렉시오, 최필공 토마스 등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 갔다. 그러던 가운데 모친이 사망하자 평생 동정을 지키며 살려 했으나 친척들의 권유로 서석봉 안드레아와 구성열 바르바라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후 가족들을 데리고 장인 부부와 함께 경상도 청송 노래산 교우촌에서 생활하였다. 1815년 부활 대축일, 노래산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된 그는 동료들에게 “문초를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말해 더욱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경주 감옥에서는 신앙이 흔들리던 장모를 끊임없이 권면하였고, 자신은 형벌 가운데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깨끗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대구로 이송된 뒤에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극심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였다. 결국 1815년 음력 5월경 옥중에서 계속되는 형벌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21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86(85), 1-3 참조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이사 22, 19-23

화답송

시편 138(137), 1과 2ㄴ, 2ㄱㄴ과 3, 6과 8ㄴㄷ(◎ 8ㄴㄷ 참조)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앞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십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로마 11, 33-36

복음 환호송

마태 16, 18 참조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음

마태 16, 13-20

영성체송

시편 104(103), 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차분하게 교리와 여러 가르침을 정리해서 쓴 글이라면, 코린토 1서와 2서는 주로 코린토 공동체의 문제들 때문에 썼던 편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 있는 두 편지 외에도 바오로 사도는 다른 편지들을 코린토 교회에 보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린토 2서에 가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코린토 교회는 파란만장한 문제들을 겪었던 듯합니다.

코린토 1서의 앞부분에서 무엇보다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바오로 편, 아폴로 편, 케파 편, 그리스도 편이라고 내세우면서 무리를 지어 갈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바오로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바오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머물면서 주변에 지지자들을 모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신자들은 이런저런 이름들을 내세우며 갈라졌습니다. 좀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같은 정당 안에서도 끝없이 갈라지는 요즘의 정치인들을 떠올리면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10)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지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겪어 본 순전히 인간적인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 착한 경우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화합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런 일치도 있기는 한데,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는 확실한 중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도 어떤 중심이, 또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신자들의 일치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지혜롭다거나 힘이 있다고 내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학자나 세상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물을 내세우거나 스스로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나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을 선택하시어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29).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2,2)만을 구원의 길로 세우셨습니다.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나 힘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어리석고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25). 스스로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전쟁과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할 때, 일치와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길이 지혜로운 길인지, 하느님이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의 어머니

「교회헌장」 제55 항

「교회헌장」 제8장은 제1장~제7장과 다르게 다섯 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절 “I. 서론”에 이은 제2절의 제목은 “II. 구원 계획과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로 제55항부터 제59항까지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첫 항인 55항은 구약 성경 안에 표현된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제2절 전체의 목적과 그것의 원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공의회는 그 목적이 “구원 계획 안에서 맡으신 구세주 어머니의 임무”에 대한 것이며, 그러한 마리아의 임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존귀한 성전(聖傳)”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제시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문장은 이제 55항에서 다루려고 하는 ‘구약 성경과 구세주의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공의회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느린 걸음으로 준비하는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구원 역사 안에서 구약 성경의 위치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의 준비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구세주의 어머니를 점차로 분명하게 밝혀 준다. 조르조 바사리의 “무염시대의 알레고리”(일부): 하와가 잃은 것을 마리아께서 돌려주신다는 문구가 있다.

교회 안에서 읽히고 “충만한 마지막 계시”의 빛으로 이해되는 구약 성경의 초기 문서들은 구세주의 어머니를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에 관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세주의 어머니로 예언된 ‘여인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담긴 모든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 안에 드러난 구원의 하느님, 곧 계시 그 자체입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암시하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 3,15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는 첫 조상들이 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난 후 하느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여인의 모습이 예언적으로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또한 공의회는 이사 7,14, 미카 5,2-3, 마태 1,22-23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주님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시온의 딸인 이 여인과 더불어 약속의 때가 차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인성을 취하시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



아름다운 동행

- 제9기 난민동행 활동가 양성교육, 선배 활동가의 증언 -

지난 8년간 저는 아버지와 매형, 그리고 소중한 친구를 차례로 떠나보내며 이별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타향을 전전하던 제게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셨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당 주보에서 난민 봉사자를 찾는다는 짙막한 공고를 보았습니다. 영어 소통과 차량 지원이 가능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차별과 편견을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버텼었던 제 젊은 날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그 외롭고 막막했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난민 가정의 곁을 지키는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난민 가정을 돕는 이 일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는 시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자라나는 ‘공생(共生)’의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조화를 이루며 기대어 살아가는 것. 신앙 안에서 맺어진 우리와 난민 가정의 인연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삶의 온기를 나누는 다정한 친교였습니다.

물론 그들을 돕고 자립하게 만드는 과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봉사자들 사이에서, 또 때로는 난민 가정과의 소통 속에서 마음이 어긋나 갈등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처럼 생각하지 못할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성의껏 알려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불쑥불쑥 찾아오는 회의감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벽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인간관계의 서투름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 우리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나라에서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처지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서툰 몸짓과 표현 역시 누군가의 눈에는 상식과 예의가 부족한 모습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은 서로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마침내 하나가 되기 위해 기꺼이 거처야 하는 아름다운 성장통이었습니다.

난민 가정들과 함께한 시간은 국적과 세대의 벽을 허물고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학교였습니다. 늘 당연하게만 여기던 일상을 낮설고 새롭게 바라보는 유연한 눈을 갖게 되었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 삶으로 생생하게 호흡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배워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뜻밖의 인연으로 시작된 이 동행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늘 가만히 되문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 동행의 길 위에서 참 행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



교구 소식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9/4(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제40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시 9/4(금) 19시~6(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9 가정사목부

한마음 사계 피정 - 9월, 10월(대침묵 피정)

	9월	10월
일시	9/11(금)~13(주일)	10/16(금)~18(주일)
강사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	이성만 토마스 신부
주제	창세기를 통해 배우는 인생의 행복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집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의정부 경제인 회원 모집

신앙 안에서 교류하며 나눔과 봉사를 함께할 경제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의정부교구 경제인, 신앙나눔, 봉사 친교 문의 010-4357-1386 사무총장 조태형 분도

제45기 복음화학교 개강

목표 신자 재복음화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생활로 증거하고 복음선포자로서의 자질 향상

날짜	9/15(화)	9/16(수)
장소	마두동 성당	교구청
문의	010-8330-8108	010-5182-3066

성바오로딸수도회와 함께하는 청년 찬양피정

일시	9/9(수) 20시	9/16(수) 20시
장소	에파타 청년센터(의정부)	에피파니아 청년센터(일산)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등록시스템 신청 ▶



기억합니다.

8월 23일은 故 김주용 암브로시오 신부의
7주기입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8/28(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강사: 고무찬 분도 신부(예수성심 전교수도회)

문의: 010-2127-0032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5지구 영성피정

일시: 8/24(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강의와 안수)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문의: 010-8917-0090

가톨릭축제 홀리 페스티벌

일시: 9/4(금) 14시~6(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25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ICPE 흙송기도회 - 이창진 아벨레오 신부

일시: 9/6(주일) 15시, 과달루페선교회

문의: ICPE 플친 010-5320-0419

화정동 성당 성체 신심 세미나

일시: 8/31~9/28 매주(월) 14시~16시 [5주간]

장소: 화정동 성당 2층 대성전

대상: 전신자(타 본당 신자 신청 가능)

회비: 2만원(교재비 6천원 별도)

문의: 010-5211-7811

1박2일 성령대회

일시: 9/11(금) 18시 ~ 9/12(토) 17:30

강사: 구요비 옴 주교, 정월기 프란치스코 신부,

한연흠 다니엘 신부, 홍성남 마태오 신부,

조남구 마르코 신부, 이성진 미카엘 신부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숙식무료)

문의: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010-3310-8826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오름·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차귀도 포함: 9/7(월)~9(수)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17(목)~19(토)

11/5(목)~7(토), 11/26(목)~28(토)

올레길 포함: 9/12(토)~14(월)

10/1(목)~3(토), 10/2(금)~4(주일)

10/13(화)~15(목), 10/17(토)~19(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예수회 청년피정 - 48 HOURS

일시: 9/11(금) 18시~13(주일) 18시

장소: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내용: 48시간, 침묵 속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문의: 010-2876-1540, jkim@jesuit.kr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9/3(목)~6(주일)

성경완독: 9/11(금)~19(토), 11/13(금)~21(토)

문의: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8/25 이상기 회장, 9/1 윤민재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올레길: 9/17(목)~19(토)

치유의숲길: 11/6(금)~8(주일) / 11/21(토)~23(월)

추자도 성지순례: 9/4(금)~7(월), 9/11(금)~14(월),

10/31(토)~11/3(화), 11/14(토)~17(화),

11/26(목)~29(주일), 12/7(월)~9(수)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가정선교회 9월 피정

일시: 12:30~16:5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9/2(수) 한상우 신부, 이현주 회장

성모신심 첫토 미사와 토요일피정:

9/5(토) 김현우 신부, 민봉기 선교사

전인적인 치유피정: 9/19(토) 한연흠 신부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및 가톨릭 환경상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일시: 9/1(화) 15시

장소: 서울대교구 파밀리아 채플(중구 명동길 74)

주례: 박현동 아바스와 사제단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교육 · 모집 ▶▶

예수님과 인생을 걷다 - 이나시오 영성강좌

일시: 9/15~10/20 매주(화) 14시~16시(6주)

장소: 한국CLC 강의실(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강사: 현재우 박사

주제: 나는 왜 세상에 왔는가(원리와 기초)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관상)

문의 및 접수: 02-2135-9398 한국 CLC

자비와 회복학교(온라인) 2학기 수강생 모집

(인터넷검색: 자비와 회복학교)

일시: 9/3~12/10 매주(목) 21:30~22:30 [15주간]

지도: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회)

신청 및 문의: 010-8911-5957

향심기도 소개강의

일시: 9/1부터, 매주(화) 14시~15:30 [4주간]

장소: 영성센터 A312호(구.계성여고)

주제: 향심기도 / 내용: 소개강의

강사: 이승구 신부(서울대교구)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4회)

문의: 010-4565-8898 서울대교구 사목국 향심기도

2026년 2학기 여정성경공부 비대면 개강

8/31(매주 월): 마르코복음 20시~22시

9/1(매주 화): 역사서1 20시~22시

9/2(매주 수): 마태오복음 20시~22시

문의: 010-8352-9986 일산 여정

[2026 가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일시: 9/7(월)~11/13(금) (※ 8/24부터 선착순 접수)

장소: 서울대교구 교구청 및 영성센터

내용: 영성, 인문학, 미술사, 문학

접수: 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s://culture.catholic.or.kr>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가톨릭전례꽃잎이 수강생 모집

내용: 성전 꽃잎이를 위한 플라워 디자인 조형요

소 및 원리, 이론과 실기

장소: 가톨릭대(역곡)

수강료: 30~40만원(재료비별도)

접수: 8/29까지 / 수강: 9월~12월, 매주(수, 목)

홈페이지 접수: cukedu.catholic.ac.kr

문의: 02-2164-6587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 캐나다 성모성지 [9박10일]

11월 /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서강대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 / 인공지능전공 모집

모집전공: 멀티미디어학 / 인공지능 전공

접수: 9/9(수)까지 / 전형일: 9/12(토)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멀티미디어학 전공)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빠른 학위취득 가능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 편입, 취업, 대학원 진학 가능

문의: 02-705-8678, scec.sogang.ac.kr

2027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만 30세 이상)

접수: 9/7(월)~11(금), 인터넷 접수

면접: 10/30(금)

문의: 02-740-9877, songsin.catholic.ac.kr

피아타스 가톨릭 합창단 단원 모집

자격: 성가대 경험 있으신 65세 이하 교우

일시: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피나움악원: 매주(금) 10:30

문의: 010 9842 8818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 상담심리)

원서접수: 9/7(월)~11(금)

문의: 043-270-0100, 0109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노르딕워킹 과정 수강생 모집

무릎, 척추 관절 부담 감소

바른자세교정&전신근육 활성화

일시: 9/15~11/24 매주(화) 10시~11:30 [10회]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학교운동장

문의: 02-705-8718, 8678

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scec.sogang.ac.kr>

남양주 성 요셉 수도원 오르간 반주 봉사자 모집

일시: 주 1회 / 평일(오전 6시) 혹은 주일(오전 10시)

모집: 0명, 봉사료 협의 가능, 연중 수시 모집

문의: 010-5123-2329

나무그늘 봉사자 모집 안내

대상: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된 신자

분야: 취재, 원고 작성, 교정

서류: ① 편집위원 지원서(교구 홈페이지-모집 안내 아래 첨부된 편집위원 지원서 본인 제출)

② 교적증명서

접수: 우편 및 이메일 samok@uca.or.kr

**안내 · 기타 ▶▶****천주교 기후정의미사 - 9/19(토)**

일시: 9/19(토) 13시

장소: 서울 보신각 앞 (1호선 4번 출구)

주례: 강우일 베드로 주교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 순교와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붉은 색 옷이나 소품을 착용해주세요

미래사목연구소 제11차 학술 발표회

일시: 9/5(토) 13:30~17시

장소: 미래사목연구소 성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주제: 2027 WYD와 청년 사목 그리고 본당 복음화

문의: 031-986-7141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우니파스 오케스트라 공연

일시: 9/4(금) 19:30 (전석초대)

장소: 고양시 문예회관 대극장

지휘: 서상재 토마스

문의: 010-5031-3475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대전교구에서 위탁운영, 치매전문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성사 생활 가능(사제, 수녀 근무)

문의: 041-950-1008

콘솔라따 선교 수도회 멕시코 선교지 순례

일정: 27년 1/4(월)~1/14(목) [10박11일]

과달루페 성모발현지 / 톱스틀라(선교지)

문의: 032-345-9907, 010-8327-9907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0/16(금)~10/26(월) 이탈리아(545만원)

11/23(월)~11/28(토) 베트남 북부(240만원)

12/2(수)~12/13(주일)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525만원)

12/22(화)~12/26(토) 성탄 필리핀(195만원)

신청 및 문의: 02-2281-9070

성심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14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10/23 튀르키예, 그리스 순례 12일

11/16 베트남 라방성모성지순례 5일

지도사제 동행

문의: 김명윤 베네딕도 010-5909-5997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안내

10/19(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10/28(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12일)

11/3(화) 이탈리아 일주 전대사 특전(11일)

11/11(월) 이탈리아 스페인 파티마(13일)

11/11(월) 일본 나가사키 운젠(4일)

1/12(화)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12일)

1/26(화) 베트남 남부 호치민 순례(5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10/26(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640만원)

11/13(금) 홍콩, 마카오(4일 190만원)

11/2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5만원)

12/1(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60만원)

1/5(화) 홍콩, 마카오(4일 195만원)

1/1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5만원)

2/6(토)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80만원)-구정연휴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13(화) 다낭 성모성지(5일, 165만원)

10/28(수) 발칸, 메주고리에(11일, 495만원)

11/02(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515만원)

11/9(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12일, 570만원)

11/24(화) 유럽4국 성모발현지(12일, 540만원 KE)

12/9(수)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0일, 대한항공)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첫째(주일) 14시	서울 혜화동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예수회	8/29(토) 15시	예수회 관구본부(서울 마포구)	010-2876-1540 vocation@jesuit.kr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와 함께하는

2026 청년 안중근 평화학교

▶ 국제 청년 안중근 평화 포럼 ◀

의(義)를 품고,
평화를 향해청년 안중근과 함께
동양평화의 미래를 그리다

역사를 걸으며, 미래를 만나다

東洋平和論
安重根하얼빈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여순
(일본관동법원)여순
(뤼순 감옥)

대상

동아시아 평화를 갈망하는 청년
20~40세

신청 인원 / 접수기한

40명 / ~8월 10일(월)까지

- 자기 소개서, 신부님 추천서 제출
- 선발 결과는 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교육 기간

① 기본 강의 (4주)

- 8월 29일 ~ 9월 19일 14시~17시 (매주 토요일)
- 장소: 일산 서구청

② 해외 연수

- 10월 8일(목) ~ 11일(일) 3박 4일
- 장소: 중국 대련 - 하얼빈

③ 국제 청년 안중근 평화 포럼

- 11월 7일(토) ~ 8일(일) 1박 2일
- 장소: 민족화해센터(파주)

혜택

- ✓ 기본 강의의 수료자 및 국제 청년 안중근 평화 포럼 참가자, 해외 연수 특전 (* 참가경비 전액 지원, 일부 개인 경비 제외)
- ✓ 평화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 ✓ 가톨릭 국제 평화 단체 연계 지원

신청 방법

구글폼 QR코드 스캔 →
(자기소개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주최·주관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화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	수, 목, 금	11: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3일 로사: 김문숙, 류다빈
27일 모니카: 전은실, 유미형
28일 아오스탕: 양남수

- 9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이경섭(안토니오), 윤대병(마리아), 장흥준(공사가)
류수안(미카엘), 이영득(로렌시아), 장병(미카엘)
전요한, 김부성(요한)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9월 병자 영성체
일 시: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9월 성시간
일 시: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9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9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 8월 연령회 안내
8월 연령회는 무더위로 한 달 쉽니다.

● 남성 구역 모임

일 시: 8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행주 성당 남성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WYD 의정부 교구 대회 홈스테이 가정 1차 모집

모집대상 : 의정부교구 내 신자 가정
활동기간 : 2027년 7/29(목) - 8/2(월) (4박5일)
(*세부 일정 추후 안내)
수용인원 : 가정별 동성 2명
주요역할 : ① 해외순례자 숙박 제공
② 아침식사 제공(기본)
③ 교구대회 및 본당 프로그램 참여 지원
④ 문화, 신앙 교류를 통한 환대 실천
신청기간 : 2026년 6/12(금) - 8/21(금)까지
신청방법 : '홈스테이 가정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제출

우리들의 정성(8/10 - 8/16)

● 교무금, 주일 헌금

교 무 금 8건 670,000원
주일헌금 749,000원
성모 승천 대축일 457,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헌금

이병수 10,000원 윤성욱 50,000원
이동준 200,000원 구바올리나 10,000원
최문녕 90,000원



(후렴) 주님, 당신자애 영원하시니 손수빛의 신것들 저버리지 마소서.